

매튜슨 성경 강의 이야기 4 - 예수님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성경의 줄거리에 관한 Dave Mathewson 박사의 네 번째 강의입니다. 이 부분에서 그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 나타난 땅, 언약, 성전, 하나님의 백성, 왕권이라는 다섯 가지 주요 주제를 추적할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성경의 줄거리라고 부르는 줄거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문학적 유형의 다양성 전체와 그 밑에는 수많은 실로 구성된 통일된 이야기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의 배경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3장에서 발생하는 복잡성이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서 어떤 의미에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장과 2장에서 우리는 모든 기본 설정과 기본 이야기, 이야기의 시작 요소를 모두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의 영광과 통치를 온 피조물에게 전파하기 위해 그의 대표자로 아담과 하와를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땅, 축복의 장소, 하나님이 거하실 곳,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실 곳.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관계의 끝을 지키고 순종하는 한 그들은 축복의 땅,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남을 것입니다.

에덴동산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신성한 공간, 즉 성전동산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거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요 대표자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통치를 온 피조물에게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축복의 땅인 성전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의 성경 나머지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많은 부분을 건너뛰고,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회복할 수단으로 선택하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요소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성전을 통해 그들에게 땅을 축복의 장소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언약을 순종하고 지키면 축복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계속해서 거하시는 땅에서는 축복을 받지만, 그들이 거부하면 저주와 포로가 되어 그 땅에서 추방되는 언약 관계를 맺으십니다. 순종하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와 이스라엘의 이야기 사이에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이 아담과 이브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 땅에서 쫓겨나거나 그 땅과 동산과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인류를 향한 자신의 의도를 실제로 회복하실 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해결해야 할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중 하나는 모든 인류의 죄와 창세기 1장과 2장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그분의 의도가 성취되지 않는다는 더 넓은 세계적 문제 또는 보편적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선택하신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야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회복하고 그와 언약 관계를 회복해야 하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전파하여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 온 땅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해야 하며, 하나님의 창세기 1장과 2장의 모든 창조 의도도 확립될 것이다. 따라서 예언적 텍스트는 이야기와 이야기의 모든 요소를 선택하고

기대로 끝납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성취되고 절정에 도달할지에 대한 예언적 기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주에 남은 것은 그 이야기와 그 기대가 어떻게 충족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다섯 가지, 최소한 다섯 가지 주요 주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다른 주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집중하기로 선택한 적어도 다섯 가지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와 이 모든 주제가 창세기 1장과 2장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창조물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 예언 본문으로 엮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 언약의 주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땅이나 창조의 주제, 새로운 창조, 성전의 주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왕권, 하나님의 통치라는 주제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확장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표하는 백성이 예언서에서 본 것이 다윗 왕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러한 모든 기대와 예언적 기대에서 나타나는 다섯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다섯 가지 주제가 신약성서에 어떻게 전달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가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에 대해 몇 가지 관찰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이 실들을 풀어내는 것, 그것들을 모두 풀어내지 않고 하나를 뽑아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이미 말했습니다.

그들은 일관된 이야기로 서로 맞물려 있어서 언약을 말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땅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왕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언약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땅과 성전에 대한 개념을 언급하지 않고는 왕권과 백성에 대한 다윗의 통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두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신약성서에서 이러한 주제 중 하나 또는 두 가지가 언급될 때 다른 주제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저자는 하나의 실타래와 주제를

꺼내서 어떻게든 나머지 모든 것과 분리되어 성취될 것이라고 제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관성 있는 이야기로서, 만약 그 이야기의 한 측면이 신약성서에서 불러일으키면, 이야기의 다른 측면은 표면 뒤에 놓여서 불러일으킨다고 가정합니다. 전체 이야기가 환기됩니다. 두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점은 이러한 스펙트럼이 충족되는 방식에서 두 가지 차이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신약성서의 이 이야기, 이 이야기와 이 다섯 가지 주제가 신약성서에서 성취되는 방식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펴볼 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야기의 클라이맥스가 됩니다. 그분은 이러한 주제를 취하여 성취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취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이러한 주제는 그분의 백성인 교회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통합되고,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후기 바울의 언어를 사용하면, 그분이 그들의 대표자이시며, 예수께서 그들의 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도 이러한 약속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약속도 그들 안에서 성취되지만, 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첫 번째 차이점은 이러한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더 나아가 그의 백성이 그에게 속한다는 사실로 인해 그의 백성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별은 이미 그러나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즉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과 도래하는 하나님의 왕국, 새로운 창조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예언적 기대 사이의 매우 잘 알려져 있고 대중적인 구별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 그 기대는 신약에서 두 단계를 거쳐 성취됩니다.

우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을 통해 시작되지만, 그 시작은 단지 최종 완성을 미리 맛보거나 계약금으로 지불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미래에 제가 이 이야기에서 이 약속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완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야기의 끝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지만 부분적으로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습니다.

복음서, 특히 마태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선포, 사역, 더 나아가 그분의 백성 안에서 강력하게 활동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계약금일 뿐이며 왕국의 최종 완성에 앞서 왕국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 즉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다섯 가지 주제가 더 있을 수 있음을 볼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야기의 다섯 가지 주요 주제에 초점을 맞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창조 때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엮어가며 그 이야기의 결론에 대한 예언적 기대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주제는 이 두 단계에서 성취됩니다. 그것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그분의 추종자들 안에서 성취되고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부르는 이야기의 최종 완성과 최종 결론이 있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제에 대한 나머지 논의에서는 이러한 차이점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와 이 다섯 가지 주제가 그리스도와 나머지 사람들, 그리고 그분의 추종자들 안에서 어떻게 초점을 맞추고 성취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에서 보내는 나머지 시간은 주로 어떻게 복음서 이외의 신약성경 문서의 나머지 부분과 신약성서 문서의 나머지 부분 역시 그리스도와 그분의 추종자들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입증합니다. 그것은 이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마지막 부분은 아직이 아닌 측면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새 창조에서 그 완성과 절정의 성취에 도달합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주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여기서 이 다섯 가지 주제가 모두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인 마지막 부분에 함께 모입니다. 그러나 그런 점을 고려하여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로서 예수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방식은 주로 마태복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논의하면서 다른 본문을 가져오겠지만,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도 역시 이 이야기의 성취와 이러한 주제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복음서가 이 이야기에 명시적으로 의존하고 있거나 적어도 가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나는 복음서의 모든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든 이야기 속에 강제로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복음서는 이야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과 성취에 도달함에 따라 주로 가정하거나 명시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럼, 매튜.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 마태복음 1장부터 4장의 몇 가지 요소를 살펴보고 이 이야기, 즉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거기에 도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마태복음의 처음 네 장 외에 다른 두 부분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다시, 이것이 마태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다른 복음서에서 몇 가지 본문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의 족보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다윗의 자손인 예수에게 주어진 이 두 칭호는 즉시 예수의 이야기를 구약의 이야기와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이 두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분명히 예수의 이야기를 사무엘하 7장, 다윗과 맺은 언약, 그리고 다윗의 보좌에 앉을 다윗 가계의 왕에 대한 예언적 기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에 대한 언급은 예수를 큰 나라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과 땅의 모든 나라가 궁극적으로 축복받을 것이라는 약속과 연결시킵니다. 이제 마태는 예수의 이야기, 그가 예수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구약성서에서 시작된 이야기의 절정이자 연속임을 보여 주려는 의도를 분명히 나타냅니다. 따라서 신약성서에 마태복음을 먼저 포함시킨 다른 이유들 중에서, 적어도 그 정경 순서는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마태 자신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구약성서의 이야기와 연결시키려는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장부터 시작하여 이 모든 내용이 어디서 함께 모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서 마태가 한 일 중 하나는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또 다른 부분은 2장의 지배적인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인도하는 구원자 또는 구원자로 묘사될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성취하시고 인류와 창조에 대한 자신의 의도를 회복시키시려는 의도를 이루기 시작하셨을 때 먼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출애굽 주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테마가 선택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마치 마태가 말하고 싶은 것처럼, 예수는 구약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 때 의도하신 바는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세부 사항, 다섯 가지 주제 중 일부, 그리고 이야기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하면 출애굽과의 연관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주제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들은 서로 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경계를 넘어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1장, 1장부터 17장까지의 이 족보에서 흥미로운 점은 마태가 이 족보를 구성하여 포로 생활을 네 번 이상 언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장 11절에서 그는 그의 족보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즉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의 아버지인 요시아에게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후 바로 다음 절에서 그는 그 점을 다시 언급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그는 그것을 두 번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모든 대는 14대이다.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14대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러므로 마태가 바벨론으로의 포로 또는 유배를 얼마나 자주 강조하는지 주목하십시오.

마치 이제 예수께서 포로생활의 궁극적인 종말이 되셨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실패하여 포로 생활을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하지 못해 포로 생활을 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궁극적으로 새로운 시대에 그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이끌어 내심으로써 성취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그리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이스라엘과 궁극적으로 모든 창조물을 향한 그분의 의도를 확립하고 완성하십니다. 이제 이미 발표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로 마태가 하는 일을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는 의도. 그래서 우리는 포로에 대한 언급이 있는 1장을 읽어야 합니다. 여기에 예언서에서 예상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 있다는 것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귀환과 회복을 기대하는 모든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흥미로운 예상 메모는 3장, 9장, 10장에서 복원이 수반할 내용에 대한 힌트를 얻습니다.

8절부터 시작하면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흥미롭게도 마태는 예수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의 일부는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는 누가 참여합니까? 예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감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육신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지금도 도끼는 나무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래서 흥미롭게도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육체적인 혈통 이상의 것을 수반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조상이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당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정한다고 가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져오실 왕국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 속한 육체적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수반할 것이라는 힌트를 얻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마태복음 2장에는 박사들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으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약속된 다윗의 왕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유대 당국과 지도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뒷문으로 나가지도 않을 때, 외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방인, 점성술사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미 마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는지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또 다른 약간의 반전이 있습니다. 마태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운명이 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몇 가지 다른 방식으로 예수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연습하고 요약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께서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습하고 반복하신다고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15절을 보십시오.

14장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그러면 요셉아, 이것은 다시 1장과 2장에 나오는 예수의 탄생과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양손을 잡았습니다. 그 아기와 그 어머니를 밤에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렀더라. 이는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느니라

이제 돌아가서 이 본문을 보면, 선지자 호세아가 말한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느니라, 이는 분명히 호세아 11장 문맥에서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그것은 전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써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었던 역사적 회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는 이 말을 예수님에게 어떻게 적용합니까? 글썄요, 그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의도와 진정한 운명을 성취하신 분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역사를 요약하면서 리허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 그의 아들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방식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출하시고 구출하시는 방식으로 반복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로 간주됩니다. 예수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출애굽을 겪고 있는 예수가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써 이집트에서 구출되었음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교차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지금 자신의 백성을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한 새로운 탈출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3장과 4장 끝에서 우리를 위해 설명되는 예수님의 세례에 관한 내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 나는 여러분이 이 이야기와 이스라엘과의 유사점이 계속된다는 점을 알아차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스라엘처럼 요단강, 즉 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홍해를 통과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이때 그들은 홍해를 거쳐 애굽에서 구출되어 시험과 유혹을 받기 위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물론 실패했고, 궁극적으로 실패하여 그들의 땅에서 추방되었다는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4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그러므로 3장에서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 후 예수님은 이집트에서 구출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세례를 받을 때 홍해로 갑니다. 이제 그는 이스라엘처럼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인도됩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에 대해 반박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구약성서의 모든 본문은 모두 신명기에서 나온 본문입니다.

그 중 대부분은 신명기에서 나온 본문이며 이스라엘을 언급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는 이스라엘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언급한 것입니다.

더욱이, 당신은 이스라엘 나라와 유사점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이스라엘과 같은 것처럼 보이십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로 인도되어 그곳에서 이스라엘처럼 시험과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와 같이 사막에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시는 창조 이야기에서도 창세기와 유사점을 보지 않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는 관계에 대한 유혹을 받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그랬던 것처럼 음식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흥미로운 그림을 갖게 되었고, 많은 주석들이 이스라엘과의 연관성과 아담과 이브와의 연관성을 모두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께서 두 가지 이야기를 모두 반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반복하고, 요약하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또한 창조의 더 넓은 이야기와 관련하여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약성서에서 전개되는 이러한 패턴을 지금 여기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들은 유혹을 받고 시험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로 추방됩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인류와 창조물을 위한 그분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됩니다.

그들 역시 유혹과 시험을 받아 아담과 하와처럼 실패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예수님도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되풀이하실 뿐 아니라 그 이야기를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운명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이야기는 주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우리는 창세기뿐만 아니라 창조의 메아리, 동산에서의 유혹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인류. 그러므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보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의 의미를 재정의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예언적 기대로부터 회복될 것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습하고, 그것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참된 운명으로 인도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성원은 더 이상 민족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정의되지 않고, 이제 오직 이스라엘의 운명을 완수하시고, 하느님의 백성을 완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정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운명을 다시 연습하고 요약하고 성취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초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구성원은 당신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브라함이 당신의 조상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을 해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관계와 그분에 대한 순종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오심, 즉 하나님 백성의 회복에 대한 예언적 기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의 운명을 채우게 될 백성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그리고 함축적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그분께 응답하는 사람들 안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다시 집중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이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왕권의 주제. 1장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메시아로 인정되었다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마태복음 전체에서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언급되는 여러 사례 중 첫 번째 사례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살펴볼 시간은 없지만 1장 20절에서 요셉 자신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는지 주목해 보세요. 다른 곳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예수를 묘사하는 핵심 모티프이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은 구약의 기대로 돌아가서 상기시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즉 누군가가 항상 그의 보좌에 앉을 것이라는 언약으로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것은 다음을 포함할 것이라는 예언적 기대로 확장됩니다. 다윗의 왕좌가 회복되고 다윗 계통의 왕이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름으로써 이 이야기 전체를 분명히 환기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의 중요성 역시 다윗의 왕권 주제가 궁극적으로 창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부섭정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가 확립되고,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피조물 전체에 확립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 기대를 이루시기 위해 여기에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가 동의하며, 특히 공관복음은 예수의 왕국, 즉 설교의 일차적이고 특징적인 특징이 하나님 왕국의 도래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고, 이는 다시 다윗의 보좌에 앉을 왕인 하나님의 대리자를 통해 도래할 세계적인 왕국에 대한 기대가 회복되는 것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는 그 왕국, 즉 하나님의 통치를 모든 창조물 위에 가져오십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그분의 영광과 주권과 통치가 모든 피조물 전체에 퍼지게 되는 것은 이 왕국과 다윗 왕을 통해서입니다. 이제 그것은 그 왕국을 제공하러 오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고전적인 본문이 12장과 27절과 28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설립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방금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지금은 바리새인들이 사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27절입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귀신을 쫓아내는 자는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곧 바알세불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즉,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성취로 하나님의 우주적인 왕국이 이제 도래했다는 표시이다. 즉, 사탄에게 빼앗겼던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될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확립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세상은 이제 사탄의 왕국이었는데, 이제 그 왕국이 뒤집어지고, 사탄에게서 빼앗겨 하나님께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사탄의 나라와 왕국을 침공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왕을 통하여 온 피조물에게 그의 통치를 전파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다윗의 아들과 다윗 왕에 대한 다윗적 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31절은 누가복음 맨 처음에 나오는 예입니다.

이는 마리아가 자신이 아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마리아에게 한 약속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그 아들이 큰 자가 되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다윗의 강력한 아들이나 다윗의 약속 주제가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권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다시 본 이스라엘의 구약 이야기와 다윗 왕에 대한 예언적 기대와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것이며 창세기 1장과 2장의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세계적인 왕국이 설립될 수단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장과 4장에서 조금 벗어났기 때문에 다른 테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잠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복음서에 있는 또 다른 두 가지 명확한 표시는 예수께서 구약성경 이야기의 성취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신다는 주제를 보여줍니다.

그 중 하나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사건입니다. 12를 택하신 것은 그것이 이상적인 소그룹이라거나 예수님께서 소그룹에 속해 계셨기 때문이 아니라,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반영한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사도를 선택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분은 예언적 기대를 성취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흥미롭게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을 발견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묘사하거나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언급하며 지옥의 문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장로와 집사가 있는 현대의 구조와 교회와 예배 등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관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모든 것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번역하는 교회라는 단어는 교회는 실제로 구약의 헬라어 버전인 칠십인역에서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집합 또는 집합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12사도에 기초한 것이며, 예수님은 이제 회복에 대한 구약의 예언적 기대를 성취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재구성하고 회복하며 재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다른 테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나중에 특히 신약성서의 다른 부분을 접할 때 이에 대해 다시 다룰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주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언약이라는 주제는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고, 다윗의 자손인 예수께서 그들을 다스리신다면, 그들은 이제 언약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의 새 언약을 회복하셨음이 틀림없으며, 특히 에스겔 36장과 37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스겔서 36장과 37장은 다윗의 통치라는 주제가 새 언약의 주제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의 회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정확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백성과 새 언약을 세우신 것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는 누가복음 22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것을 제정하고 제정하시는 가운데, 이는 다시 유월절 식사의 성취였을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만찬 후에 잔을 가지고 그와 같이 행하여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붓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죽음에 대한 복음서의 언급과 관련하여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새 언약을 시작하시는 것으로 분명히 보입니다. 에스겔과 예레미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의 완전한 용서를 이루실 것이며, 죄를 도말하시고 더러움을 제거하실 것이며, 이 언약 관계의 일부로서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회복하시는 새 백성, 즉 12사도에 기초를 두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을 중심으로 하는 새 백성과 함께 이 새 언약을 시작하시는 것으로 분명하게 보입니다.

사원의 주제.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에덴동산을 신성한 공간, 성소, 성전으로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이 광야를 방황하다가 그 땅에 정착하여 보다 영구적인 성전 건축물을 건축하는 성막과 성전에 대한 묘사도 에덴동산과 온갖 올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막과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거주하시며 그의 임재가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장소인 에덴동산의 축소판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성전 주제도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백성을 회복하러 오셨고 이제는 다윗의 왕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그들과 언약관계를 맺으셨다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대했던 대로 성전이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백성들과 함께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흥미롭게도 마태복음 전체가 시작과 끝으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미 처음 몇 장에서 마태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묘사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참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의 운명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들을 다스리는 메시아 왕으로 묘사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맥락 에서도 , 마태복음의 시작과 끝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임재하신다는 기록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장은 이 두 본문 중 가장 친숙하고 잘 알려져 있지만, 마태복음 1장과 23절에서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 알려줄 때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나는 다시 한 번 문맥에서 이것이 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일어났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이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임재하신다는 강력한 증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다시 간단히 살펴보게 될 대위임령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임재,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과 함께 장막을 치고 있는 그의 성전에 대한 기록으로 묶여 있습니다. 네 번째 복음인 요한복음은 더욱 분명하다. 요한복음 1장의 시작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이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탄절에 흔히 인용하거나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14절, 그리고 분명히 예수를 가리킨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고 보았습니다.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거하셨다거나 살았다는 것과 영광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한다는 개념이 장막을 치거나 천막을 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개념은 예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임시 거처를 정하시거나 잠시 동안 천막을 치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단어는 훨씬 더 심오합니다. 두 단어 모두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막이나 성전에서의 임재를 언급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사실, 에스겔 43장과 처음 몇 구절, 1절부터 7절까지, 이 두 단어인 영광과 거하다라는 동사는 둘 다 에스겔이 본 종말론적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관련하여 발견됩니다.

우리는 그 본문을 보고 에스겔서의 처음 두 장, 즉 40장, 41장, 42장, 즉 처음 세 장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다윗 왕조가 다스리게 될 때 재건되는 종말론적 성전에 대한 에스겔의 환상적 여행을 기록하고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3장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마침내 그 성전을 채우게 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 번 성전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지만 또한 거기에 거하거나 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요한이 지금 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사와 비슷한 형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의 장막이 이제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과 다른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전을 가득 채웠던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주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고, 자기 백성을 데려오고, 자기와 관계를 맺도록 부르시기 위해 지금 오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을 직접 예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자신의 백성을 회복하시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여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분의 세계적인 통치를 확립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된 성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와서 백성과 함께 안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하여 백성과 함께 거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거하시고 거하시느니라.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주제는 땅과 창조라는 주제이다.

많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찾을 수 있듯이, 다윗 왕 주제와 메시아 주제에서 찾을 때, 땅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 이 복잡한 이야기의 일부로서 이 모든 다른 요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땅으로 회복되는 일도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다윗 계통의 왕이 지금 그들을 다스리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왕국을 가져오신다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의 성전 임재가 이제 회복되었다면, 그 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지만 어떻게? 글썄요, 최소한 복음서에는 몇 가지 힌트가 있으며 신약성서의 나머지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복음서에서 땅에 대한 약속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왕국과 그가 지금 가져오는 구원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제가 흥미를 느끼는 몇 가지 흥미로운 텍스트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17절입니다. 나는 이 본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지 않고 단지 땅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대한 그의 관찰 중 일부는 휘튼 대학의 신약학 교수인 Gary Burge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하느님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비교하기 위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던 포도나무를 이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본 것과 유사한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의도와 운명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요한복음 15장에서 사람들이 자기 안에 거하도록 부르시는 표현과 열매 맺는 것에 대한 언급을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내가 참 포도나무요”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포도나무 농부이십니다. 그분은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가지를 제거하십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처럼 내 안에 거하거나 머물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부분에서 두 가지 모티브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머무름의 언어이다. 아마도 다시, 땅에 거주하거나 땅에 살고 땅에 거주한다는

개념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욱 중요하게 만드는 것은 결실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특히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돌아와 그들의 땅으로 회복된 때, 즉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으로 회복되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때가 될 것이라고 어떻게 묘사했는지 보았습니다. 에덴동산의 첫 창조와 마찬가지로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다고 언급함으로써 요한은 부분적으로 예언적 기대로부터 창조와 땅으로의 귀환의 이미지를 환기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땅에 창조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땅에 대한 궁극적인 약속이 이제 성취되었음을 암시하는 요한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땅과 관련된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는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성취됩니다. 우리가 땅의 열매를 맺는 것은 그분 안에 거함으로써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이 이제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흥미롭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어지는 강의에서 신약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볼 때, 나는 땅이 주로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예표하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땅과 그 땅의 축복은 신약성경 저자들이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제공되고 성취되는 것으로 보는 축복의 예표 역할을 하며, 궁극적으로 새 창조에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은 땅에 대한 약속에서 물리적인 특성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습니다. 다만 땅의 약속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되지만,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새 창조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앞서 뛰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와 관련된 몇 가지 다른 징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아마도 새로운 창조,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37장에서 살펴본 본문 중 하나인 마른 뼈 골짜기를 기억하십시오.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에 따라 땅을 회복하고, 왕과 다윗의 계열이 그들을 다스리는 땅으로 회복된 것은 생명을 주는 것으로 상징되었습니다. 죽은 몸과 마른 뼈가 살아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느니라. 이는 부분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배경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또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는 것은 그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복음서 전반에 걸쳐 예수께서 죽은 자를 고치시고 살리셨다는 사실은 이사야 65장과 같은 새 창조 본문과 사망이 없어질 다른 본문, 즉 죄로 인해 첫 창조에 들어온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새 창조의 특징을 나타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유와 다른 기적, 자연의 기적, 특히 치유와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시간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자체가 시작하는 새 창조의 삶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성취의 이미 부분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땅의 축복이 궁극적으로 이사야서와 같은 책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창조.

우리는 그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순종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열매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의 생명, 이 땅의 축복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은 여전히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의 새로운 창조에서 일어날 궁극적인 성취를 가리키고 있으며, 나중에 다루게 될 21장과 22장의 내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8장 끝 부분에 있는 소위 대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는 이미 이것을 읽었지만 빨리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께서 오셔서 이르시되 제자들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민족을 가르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즉,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마태복음 앞 부분에서 본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하셨다면, 그분이 지금 그들을 다스리는 다윗 가문의 왕이시라면, 그분께서 지금 그들을 다시 데려오셨다면 말입니다. 그 땅에, 새 창조를 시작하시고, 그들에게 땅의 축복을 주시고, 만일 그가 새 언약 관계를 맺으셨다면, 하나님의 성전 임재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지금 그의 백성과 함께 안식하고 있다면, 구속과 구원의 축복이 흐를 수 있습니다. 온 땅에. 그래서 마태복음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의 성취, 구원의 축복, 그분의 영광과 통치가 온 땅을 가득 채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시 세우셨으니 이제 구원의 축복이 땅 끝까지 흘러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사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에 대한 언급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주목하십시오. 그 표현은 다니엘 7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시,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에 대한 우주적인 통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의 축복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 인류와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여 이제 구원의 축복이 온 땅에 퍼져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의 모든 주요 주제, 시작과 창조, 하나님의 백성의 주제, 언약의 주제, 땅으로 돌아가는 새 언약과 창조, 하나님의 성전 주제와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는 주제를 봅니다. , 왕권이라는 주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절정에 이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다루게 되면서,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모든 창조의 이야기도 이제 해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 이야기가 신약성경의 나머지 부분, 사도행전, 바울의 서신, 그리고 다른 서신서까지 계속되는 것을 발견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주요 주제, 즉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그에게 속한 그분의 백성 안에서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신약의 나머지 부분에서 계속해서 성취되고 전개됩니까? 다음에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신약성서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계속 전개되고 성취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